

# 전남 쌀값 하락세 심상치 않다

20kg들이 3만3087원... 작년比 8309원↓

재고량은 더 늘어나... 가격하락 지속 예상

쌀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산지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가격이 약세를 보인다. 이어 올해에도 쌀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4일, 농협전남지역본부가 파악한 지난달 전국 산지 미곡종합처리장(RPC)의 평균 쌀 출하가격은 3만 3087원(20kg 정곡 기준)으로, 지난 3월 3만3946원보다 859원이 떨어졌다. 지난달 쌀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4만1396원)에 비해 8309원이나 폭락한 상황이다.

지난 3월말 현재 농협과 민간RPC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 쌀 재고량도 16만7000t으로, 지난해 3월말에 비해 7천t이 늘어났다.

이 때문인지 쌀재고량 증가로 인한 쌀값 하락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80kg 한 가마를 기준으로 한 전국 RPC의 쌀 출하가격은 2009년산이 본격적으로 출하된 지난해 11월 14만 2289원을 기록한 뒤 ▲12월 14만 1639원 ▲2010년 1월 14만855원 ▲2월 14만206원 ▲3월 13만9091원에

거래되는 등 줄곧 하락했다. 13만원대는 쌀값 최저 수준으로, 재고증가와 쌀값 하락 등이 계속 이어질 경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민간 RPC 등이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가 출하까지 할 가능성도 있어 재고증가와 가격하락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문제는 정부가 2009년산 쌀 20만t을 추가로 시장에서 경리키로 하는가하면, 눈을 봄이나 사료작물 재배자로 전환해 쌀 생산량 감소를 추진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도 이같은 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영농철을 앞둔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북 쌀 지원을 비롯, 쌀 가공산업 활성화 정책 등 추가 대책

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농민회 관계자는 “전국 재고미가 작년 80만t에서 올해 150만t으로 늘었는데도 정부가 내놓은 것은 고작 20만t 격리뿐”이라며 “대북지원 등 긍정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쌀값하락은 올해 가을 쌀 수확기에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와관련, “정부가 쌀 20만t 추가 격리 조치를 지난달 내놓은 만큼 조만간 쌀값도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협도 민간 RPC 등과 협조해 다양한 쌀 판촉행사에 나서는 한편 고향 쌀 팔아주기, 지역 내 기업체 쌀소비 촉진 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 지역난방 ‘눈감고 선정했나’

감사원, 도로 예정부지에 수억들여 준공 등 적발

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도로 예정부지에 지역난방시스템을 설치하고 부적절 허용등록증을 1순위로 선정하는 등 지역난방시스템 보급사업 선정기준을 어겨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 농업

기술센터는 지난 2008년 10월 지역난방 보급사업 대상자로 A화훼영농법인을 1순위로 선정해 농촌진흥청에 제출, 지난해 11월까지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일대 8250m<sup>2</sup>에 국비 5억 2500만원, 지방비 1억7500만원, 자부담 1억7500만원 등 8억7500만원을

들여 난방시스템을 준공했다. 그러나 이 화훼영농법인이 사업대상자로 신청한 지역은 지난 1997년 말 광주시 광산구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구로 고시한 지역으로, 2014년 이후 도로건설이 예정돼 있어 장기간 온실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할 수 없다는 시설원에 지역난방시스템 보급사업 선정기

준’을 위반했다. 또 1순위 사업자인 A화훼영농법인이 지열사업지역으로 신청한 26개 비닐온실이 시설원에 액수를 재배시설이 있는 단순 판매업체나 창고, 판매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등 사업자 선정과정도 불투명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광주시에 농업기술센터 내 지역난방시스템 담당 공무원과 이 같은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농촌진흥청에 보고한 공무원 등 2명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72조(정계 등 절차)’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국민 만령

- 김종우



일단, 사정이나 해놓고 보자

## ‘국가 빚’ 이자만 20조원

국민 1인당 41만원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올해 체무 이자만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7년전 7조원에 비해 3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서울시 한 해 예산(21조3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연도별 국가채무 이자는 2002년과 2003년 각각 7조원에서 2004년 9조원, 2005년 9조9000억원, 2006년 11조4000억원, 2007년 13조원, 2008년 13조3000억원, 2009년 14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여기에는 지방정부가 진 채무의 이자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국가채무 이자는 더 늘어난다. 작년 말 현재 지방정부의 순채무(지방자치단체 채무 중 중앙정부에 진 빚을 뺀 금액) 13조 5000억원에 연 4% 이자율만 적용하더라도 연간 이자액은 5000억원을 출찍 넘어선다.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연도별 국가채무 이자는 2002년과 2003년 각각 7조원에서 2004년 9조원, 2005년 9조9000억원, 2006년 11조4000억원, 2007년 13조원, 2008년 13조3000억원, 2009년 14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 아리올공인중개사

☎ (063)583-7788  
☏ 010-8004-5900  
(전국 서비스인, 세금을 전문업자)

▶ 펜션건물(투자, 임대, 임대)

▪ 대지 300평 건물 140평

▪ 매가 7억

▪ 임시연 월 수익

최저 1300만원 이상 발생

▪ 월 2억 이상 가능

▶ 투자용 펜션 월지

▪ 150~300평

▪ 평당 50~100만원

▪ 해수욕장 주변으로 배산입수

▪ 를 갖춘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으로 투자 적합.

▶ 투자용 전원주택 월지

▪ 150~300평

▪ 평당 25~35만원

▪ 새만금 밀집지역을 탈피

▪ 하고 험가로운 전원 주택지

▪ 를 찾는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④ 새만금 관광시대 일박으로

펜션투자자 광주지역

원룸부지의 절반 금액으

로 수입은 3배이상 금리

는 낸 25%이상 보장되는

를 드릴만 취급

④ 2010년 4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개통으로 지

금이 투자적기!

### (서울) 퍼스트부동산

☎ (02) 515-8698  
010-6245-5585

▶ 펜션건물(투자, 임대, 임대)

▪ 대지 300평 건물 140평

▪ 매가 7억

▪ 임시연 월 수익

최저 1300만원 이상 발생

▪ 월 2억 이상 가능

▶ 투자용 펜션 월지

▪ 150~300평

▪ 평당 50~100만원

▪ 해수욕장 주변으로 배산입수

▪ 를 갖춘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으로 투자 적합.

▶ 투자용 전원주택 월지

▪ 150~300평

▪ 평당 25~35만원

▪ 새만금 밀집지역을 탈피

▪ 하고 험가로운 전원 주택지

▪ 를 찾는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④ 새만금 관광시대 일박으로

펜션투자자 광주지역

원룸부지의 절반 금액으

로 수입은 3배이상 금리

는 낸 25%이상 보장되는

를 드릴만 취급

④ 2010년 4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개통으로 지

금이 투자적기!

### 금산공인중개사

☎ T.581-5888 H.011-8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 상무신도심 상업용지(C1지역) 매매

■ 위치: 삼성빌딩,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면 광로변)

■ 대지면적: 약 2,850m<sup>2</sup> (10평 분할기능)

■ 3.3평당 매매가: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동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종합병원/상가/오피스/유동기능

전국

상업용지

매매가

전국